

이꽃님 장편소설 『죽이고 싶은 아이 2』

함께 읽기 수업구성안



책 소개

학교에서 사망 사건이 일어나고 17세 소녀가 친구를 죽인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다.
공방에 공방을 거듭하던 재판은 홀연히 등장한 목격자의 결정적 증언으로 드디어 종결되는 듯 보였다. (1권)

그러나 재판정을 나서자마자 목격자는 섬뜩하리만치 수상한 웃음을 흘리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한 담당 형사는 재수사를 시작하는데……

“다른 사람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요? 지주연이 정말 아무런 죄가 없다고?”

진실은 밝혀졌으나 여전히 누구도 믿어 주지 않는 주연에게
급기야 돌도 없이 소중한 존재였던 서은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야기는 예상치 못했던 결말로 향한다.

이제는 세상에 없는 서은을 따라 터벅터벅 걸음을 옮기며 주연은 어디로 가려는 것일까?
내내 주연의 걸을 맴도는 서은은 주연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

“맞아. 사람들 말처럼 나는 잔인하고 악독한, 그런 애였던 거야, 나는. 무서워. 다시 혼자가 될까 봐.”
“주연아, 너는, 너는 꼭……” (2권)

이토록 매운 상처와 눈물 뒤에도 우리는 서로를 계속 안아줄 수 있을까? 『죽이고 싶은 아이』 첫 번째 이야기가 깨진 거울처럼 세상을 비추는 진실과 거짓 그 자체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 이야기는 그 진실과 거짓들 사이를 어떻게든 헤쳐 나가려는 필사적인 마음에 대한 이야기이다.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이야기가 끝나고 모든 단서가 조각난 퍼즐처럼 맞춰지는 순간, 숨죽여 이를 지켜보던 독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스며든 감동으로 뜨거워진 눈가를 매만지게 될 것이다.

그간 이꽃님의 작품 세계는 한편으로는 십 대들의 마음을 다정하게 어루만지는 애뜻한 이야기와,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의 부조리함을 정면으로 파고드는 강렬하고 서늘한 이야기로 나뉘어 있는 듯 보였다. 그러나 『죽이고 싶은 아이 2』에서 작가는 갈등과 냉소의 이면을 또렷이 응시하면서도, 날 선 목소리를 누르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선의와 믿음을 포기하는 않는 따스하고 강인한 마음임을 감동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이 책은 ‘절망의 끝에서 피어나는 희망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오래된,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청소년 문학의 존재 이유이기도 한 메시지를 누가 이토록 ‘재미’있게 ‘감동’적으로 창조해 낼 수 있을까?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도저히 눈을 떼 수 없도록 펼쳐지는 이야기 본연의 힘 속에서, 비로소 온기 가득한 이꽃님 월드는 완성된다.

(출판사 책 소개 중)

학습 목표

- 미디어나 여론에 의해 왜곡되는 진실의 양상을 살피고 비판적인 수용자로서 어떻게 미디어나 여론을 대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 진정한 사랑과 우정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그 의미를 실현하는 방법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봅시다.
-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는 일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고 용서하거나 용서받은 경험에 대하여 성찰해 봅시다.

차시별 활동 계획

차시	단계	활동 내용	비고
1	읽기 전	[활동 1] 『죽이고 싶은 아이』를 읽고 100자 평 쓰기 [활동 2] 『죽이고 싶은 아이 2』의 내용은 어떻게 펼쳐질지 자유롭게 상상하여 말해 보기 [활동 3] 소문이나 여론이 개인의 삶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상황 찾아보기	모듬 활동 모듬 활동
2	읽기 중	[활동 1] 주연이를 둘러싼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찾아보기 [활동 2] 주연이의 거취를 두고 갈등을 겪는 엄마, 아빠의 입장과 그 입장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기 [활동 3] 주연이를 이해하거나 도움을 준 인물들의 태도와 행위에 대해 찾아보기	
3	읽기 중	[활동 1] 주연이가 서은이와 화해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서은이의 죽음 이후 주연이가 깨달은 것에 대해 생각해 보기 [활동 2] 무너지던 가정을 다시 세우기 위해 주연이네 가족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성찰한 과정에 대해 생각해 보기 [활동 3] 증오와 혐오가 만연한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노력할 점 토의해 보기	모듬 활동
4	읽기 후	[활동 1] 소설과 노래 가사를 연관지어 진정한 의미의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기 [활동 2] 영상과 기사를 소설과 견주어 살펴보고 억울한 피해자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지점 생각해 보기	모듬 활동
5	읽기 후	[활동 1] ‘용서하기’에 대한 글을 읽어 보고, 용서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기 [활동 2] 소설의 결말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연이가 서은이의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 쓰기	
6	심화 활동	영화 『벌새』 감상하기	모듬 활동

1차시 - 읽기 전 활동

1. 『죽이고 싶은 아이』를 읽고 이 책에 대한 100자 평을 써 봅시다.

예)

『서울 아이: 기다리는 일의 끝에 누군가』 - 형제는 벌써 3년째 둘이서만 지내고 있다. 형은 ‘아이언맨’을 찾으러 며칠씩 집을 비우곤 했는데 이번 외출은 조금 길어지고, 돌아올 길목을 지키던 동생은 열병을 앓은 뒤 훌쩍 커버린다. 기다리는 일의 끝에서 소년이 마주한 인생의 비밀은 무엇일까? 느슨한 연대와 자기만의 환대로 무심히 형제의 곁을 지키는 이웃들과 함께한 눈부신 여름방학 이야기. (우리학교 소설 홍보지 인용)

2. 『죽이고 싶은 아이』의 결말에 이어 『죽이고 싶은 아이 2』의 내용은 어떻게 펼쳐질지 자유롭게 상상하여 그 내용을 말해 봅시다.

3. 작가는 “『죽이고 싶은 아이』가 진실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죽이고 싶은 아이 2』는 소문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장악해 가는지를 보여 주는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문이나 여론이 한 개인의 삶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상황을 듣거나 본 적이 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2차시 - 읽기 중 활동

1. 주연이가 체포되고 난 후 새로 용의자가 특정되고 결국에는 주연이는 서은이의 죽음에 대해 무죄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주연이를 둘러싼 여론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찾아서 써 봅시다.

- 학교 친구들

- 아파트 주민들

- 학부모들

- 방송 매체

- 유튜버

2. 주연이가 풀려나온 뒤 주연이의 엄마와 아빠는 주연이의 거취를 두고 갈등을 겪습니다. 엄마, 아빠의 입장은 어떻게 달랐으며, 엄마와 아빠가 그런 입장을 갖게 되었던 개인사적 배경은 어떤 것이었나요?

	엄마	아빠
주연의 거취에 대한 입장		
그런 입장을 갖게 된 개인사적 배경 (엄마, 아빠의 가정 환경 등)		

2차시 - 읽기 중 활동

3. 주연이가 여론의 매도와 엄마 아빠의 몰이해 속에 외로움을 겪을 때, 손을 내밀어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태도로 주연이를 대하며, 주연이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해 주었나요?

- 담임 선생님

- 조리사

- 3학년 선배들

- 서은이 엄마

3차시 - 읽기 중 활동

4. 서은이의 환영을 계속 보았던 주연이가 마침내 서은이를 놓아주게 될 수 있었던 까닭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꿈속에서 주연이와 서은이는 어떻게 화해할 수 있었나요? 서은이의 죽음과 그 이후에 이어진 일들을 겪으면서 주연이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나요?

5. 주연이네 가정은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였지만, 이면에서 무너지고 있었지요. 무너지던 가정을 다시 세우기 위해 주연이네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을 성찰한 과정은 어떤 것이었나요?

	자신을 성찰하게 된 계기와 성찰한 내용, 그 성찰을 실천에 옮긴 방식
주연	
주연이 엄마	
주연이 아빠	

3차시 - 읽기 중 활동

6. 다음 인용 부분을 읽어 보고, 이 부분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서로의 생각을 말해 봅시다.

어쩌다 증오의 사회가 되었을까.

누군가를 헐뜯고 미워하고 욕지거리를 내뱉으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어떤 변명도 들어 주지 않은 채 몰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어둡고 불쾌한 구덩이를 점점 더 크게 만들어 누군가를 파묻고 나면, 그렇게 하면 안식이 찾아오는 걸까.

사람들은 시간을 투자해 미워할 대상을 찾아 힘껏 욕을 했다. 그렇게 미워할 대상이 사라지고 나면, 다시 누군가를 미워했던 이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 댔다. 미워하고, 손가락질하며 다시 분노하고, 반성하는 척 또 다른 누군가를 혐오하는 일이 왜 자꾸 반복되는지, 변호사는 이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알 길이 없었다. 마치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본성이기라도 한 듯 평안을 찾기도 전에 다시 분노하는 행태가 잔뜩 엉켜 버린 매듭처럼 복잡하게 느껴졌다. (109쪽)

4차시 - 읽기 후 활동

1. 주연이가 엄마, 아빠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사랑은 어떤 것인지 아래 노래의 가사를 참고하여 써 봅시다.

나는 한때 내가 이 세상에 사라지길 바랬어
 온 세상이 너무나 캄캄해 매일 밤을 울던 날
 차라리 내가 사라지면 마음이 편할까
 모두가 날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두려워
 아름답게 아름답던 그 시절을 난 아파서
 사랑받을 수 없었던 내가 너무나 싫어서
 엄마는 아빠는 다 나만 바라보는데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자꾸만 멀어만 가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 불빨간사춘기, 「나의 사춘기에게」

하루에 몇 번씩 눈물이 차오를까
 세어보려고 해도 난 못해
 사실은 항상 참고 있는 거라서
 요즘 난 어때 네가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지 궁금해
 요즘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나는 모르거든
 만약에 내가 너라면
 아무 말없이 날 안아줄 거야
 만약에 네가 나라면
 그 품에 안겨 흐느끼고 있겠지

- DAY6, 「아픈 길」

주연의 말

엄마, 아빠, 저는 이런 사랑을 원해요.

4차시 - 읽기 후 활동

2. 아래 영상과 기사를 읽어 보고,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기사 속의 청소년들과 소설 속 주연이가 갖게 된 공통적인 심경은 어떤 것이었나요?
- 진실을 밝히는 데 기사 속 청소년, 노숙인들이 가진 어려움은 무엇이었으며, 주연이가 가졌던 어려움은 어떤 것이었나요?
- 우리 사회에서 비슷한 피해자들이 발생했던 사례를 더 찾아봅시다. 이러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 사건 관련 영상 |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8회 요약 (SBS)

<https://www.youtube.com/watch?v=GnR0DGYPzds>

PDF에서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유튜브 링크 연결)

[기사]

‘노숙소녀 살인사건’ 재심서 결국 무죄

“그럼 억울한 옥살이 안해도 되나요?”

법원 “원심 주요증거, 신빙성 없어”

피해자들, 국가에 배상 청구 계획

한겨레신문 2012-10-25 19:16 박태우 기자

“그럼 옥살이를 더 해야 하는 것인가요?”(정아무개씨)
 “더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형을 다시 정한 겁니다.”(재판장)

25일 오전 서울고법 505호 법정. 수사기관의 압력에 못이겨 수원역에서 노숙하던 청소년을 때려 숨지게 했다는 혐의(상해치사)로 5년 동안 옥살이를 한 정아무개(33)씨는 이날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씨는 누명을 풀게 된 순간에도 감옥살이에 대한 공포가 여전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재판장에게 형을 다시 살아야 하는지 물었다. 재판장이 상해치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뒤, 이와 별개로 다른 노숙인을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자 정씨가 놀란 것이다. 6개월보다 훨씬 긴 세월을 억울하게 갇혀 있었던 정씨가 다시 감옥에 갈 필요는 없다.

4차시 - 읽기 후 활동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는 이날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한겨레> 연재기획 ‘무죄의 재구성’ 참조)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정씨의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원심의 주요 증거가 정씨와 다른 공범의 자백 취지 진술이었는데, 이는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객관적 합리성도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장은 선고를 한 뒤 “피고인의 지난 시간에 대해 안타까움이 느껴진다”고 정씨를 위로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정씨는 이날 취재진의 질문에 조금 어눌하게 답변했다. 그는 “내가 안 했다고 했는데 내 말을 아무도 안 믿어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허위 자백을 강요한 경찰이 원망스럽지 않냐는 물음에 “그때는 원망했지만 지금은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씨를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는 엉뚱하게 공범으로 몰려 옥살이를 해야 했던 청소년 5명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계획이다. 박 변호사는 “옥살이를 했던 시간에 대한 보상은 물론, 잘못된 수사 과정과 이것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생긴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수원 ‘노숙 소녀’ 살해 누명 억울한 옥살이…
법원 “자백 강요받은 노숙인들에 배상”
경향신문 2014.10.26. 장은교 기자

2007년 5월 수원의 한 고등학교 화단에 여중생이 쓰러져 죽은 채로 발견됐다. 여중생은 가출 후 수원역에서 노숙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인으로 한 노숙인 남성을 지목했고 그해 12월 그는 항소심 법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검찰은 진범 5명을 추가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노숙소녀 살해사건 진범 추가 발견, 암장될 뻔한 노숙소녀 죽음 진상규명’이라는 보도자료도 발표했다.

수사과정에서 자백과 부인을 반복하던 이들은 공판절차가 시작되자 “우리가 폭행한 사람은 다른 노숙인인데 검사의 강압으로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0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박평균 부장판사)는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ㄱ씨 등 피해자들과 가족 등 9명이 국가와 수사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ㄱ씨 등에게 200만~2400만원까지 약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예단을 갖고 해명의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은 잘못을 인정했다. ㄱ씨 등은 검사가 자백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다른 애들 진술 다 받아놨다” “다른 애들이 말한 것으로 기소해도 너는 어차피 죄값을 받는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범행을 자백한 공범이 없는 상태에서 검사는 일부가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표현을 하며 자백을 종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검사의 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과 검찰의 선부른 판단과 수사로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의 진실은 7년 넘게 미궁에 빠지게 됐다.

5차시 - 읽기 후 활동

3. 서은의 엄마는 어떻게 주연이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글을 읽어 보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용서’가 갖는 가치에 대해서 토의해 봅시다.

마음으로 낳은 아들

1993년 2월 12일, 메리 존슨의 외아들 라라미언 버드가 살해당했다. 당시 라라미언의 나이는 스무 살이었다. 당시 열여섯 살이었던 피의자 오쉬 이스라엘은 2급 살인 혐의로 24년형을 선고받았다. 몇 년 후 메리는 복역 중인 오쉬를 찾아갔고, 2010년 그가 석방된 이후부터 미니애폴리스 북부에서 이웃으로 살고 있다. 메리는 현재 치유와 화해를 통해 피해자 가족과 가해자 간의 폭력을 종식시키는 단체인 ‘죽음에서 삶까지(from death to life)’를 설립해 헌신하고 있다.

메리 존슨의 글

직장으로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 와 아들이 그날 밤 집에 돌아왔는지 묻더니 아직 안 왔다면 어서 어디 있는지 알아 봐야 할 거라고 말했다. 전화를 한 여성은 사실인지는 잘 모르지만 라라미언의 시신이 영안실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너무 혼란스러웠던 나는 즉시 동생에게 연락했고, 동생은 경찰에 전화를 했다. 다시 내게 전화를 한 동생이 “언니, 경찰이 언니를 만나러 온다는 걸 보니 사실인가 봐”하고 말했다.

그 순간 내가 기절을 한 모양이었다. 정신을 차려 보니 상사가 나를 붙잡고 있었다. 회사 건물에서 나온 기억도, 시내까지 얼마 안 되는 거리를 운전해 간 기억도 없지만 동생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시신의 신원이 라라미언으로 확인된 후였다.

사흘 후 경찰은 라라미언의 목숨을 앗아 간 열여섯 살 소년을 체포했다고 알려 왔다. 내 마음속의 증오심은 그때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린 것이 틀림없다. 기독교 신자인 내가 증오심으로 불타올랐던 것이다. 나는 그 소년이 성인들과 같은 1급 살인죄로 재판을 받게 될 거라고 확신했다. 그런데 판사가 갑자기 2급 살인죄로 죄목을 바꿨다. 그 순간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을 수 없었다. 법정에서 선 오쉬가 내게는 짐승처럼 보였다.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피해자 진술을 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나는 신앙에 힘입어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기 때문에” 오쉬를 용서했다는 말로 진술을 마쳤다. 오쉬의 어머니가 증언하면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 아이를 용서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 나는 진심으로 용서를 한 게 아니었다. 슬픔의 뿌리는 너무나 깊고 넓게 퍼졌고, 어느새 분노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나는 모든 사람을 증오했다. 그런 상태는 몇 년 동안 계속되었고 많은 사람이 나에게서 멀어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어머니의 이야기가 담긴 시 한 편을 읽게 되었다. 살해당한 아이의 어머니와 살인을 저지른 아이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였다. 치유의 힘을 가진 그 시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아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 주었다. 그 순간 아이를 잃은 어머니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 간 아이의 어머니들 모두를 위한 단체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오쉬를 용서하지 않고는 절대 그 어머니들을 도울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교도소 당국에 연락해 오쉬를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5차시 - 읽기 후 활동

교도소에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었던 나는 그곳에 도착했을 때 너무 겁이 나 발길을 돌리고 싶었다. 하지만 오쉬가 면회실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나는 그와 악수를 나누며 말했다. “나는 너에 대해 모르고 너도 나를 모르지. 내 아들도 너도 서로를 몰랐고. 그러니 서로를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야겠구나.” 우리는 두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고, 대화 중에 오쉬는 자기가 한 일을 인정했다. 그 아이가 얼마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고, 면회가 끝나 갈 무렵 진심을 담아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었다. 오쉬는 내가 자신을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고 나에게 포옹을 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오쉬가 면회실에서 나간 뒤 나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되뇌었다. “내가 방금 내 아들을 죽인 사람과 포옹을 했구나...” 그러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발바닥에서부터 뭔가가 솟아올라 내 몸을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어떤 증오심도, 적대감도, 분노도 느끼지 않았다. 이제 끝이 난 것이다.

2010년 3월 우리 단체는 가톨릭 수녀 몇 명과 함께 오쉬가 집에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파티를 열었다. 심지어 예전 강단 멤버들까지도 구경을 하러 시카고에서부터 차를 몰고 왔다. 오쉬가 나와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밝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가 그렇게 하길 원한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오쉬는 내가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우리 두 사람이 함께 나란히 서서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다른 어머니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치유를 위한 길이라고 말해 주곤 한다.

오쉬 이스라엘의 글

어렸을 적 거울에 비친 나를 보면서 내가 자라서 살인자가 되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여전히 나는 내가 어찌다가 잘못된 길로 빠져서 그런 가슴 아픈 일을 저질렀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그날 밤은 모든 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어른들의 파티에 참석한 열여섯 살 꼬마였다. 서로 으스스대고 잘난 척하는 분위기가 가득했다. 라라미언은 그의 패거리들과 파티에 왔고, 나는 내 친구들과 함께였다. 우리는 앞다투어 센 척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척하는 데서 그치지 못하고 한 발 더 나아가고 말았다.

법정에서 벌어진 일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정신이 완전히 나가 있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단지 나의 물리적 껍데기일 뿐이었다. 몇 년 동안 나는 내가 한 일을 인정하려 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돌렸다. 그렇게 시시하고 바보 같은 짓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다. 그 고통을 직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탓했던 것이다.

이제야 깨달았지만 나는 성장 과정에서 특정 일들을 지나치게 마음에 담아 두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다. 나를 깔보고 무례한 말을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채 분노에 사로잡혀 마음속의 응어리가 점점 더 커져만 간다. 그리고 그런 감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언젠가 고개를 들어 나를 집어삼키는 날이 온다. 예를 들어 알코올에 중독돼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은 아버지를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희망을 잃었고 늘 뼈뿔어져 있었다. 내가 용서를 하면서 살았더라면 그날 밤 파티에서 그렇게 폭발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나는 교도소에서 격리된 채 오랜 시간을 보냈고, 세상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듯 멍하니 하루하루를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에게 어떤 깨달음이 찾아왔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나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성장을 겪었다. 다행히 메리가 연락을 해 온 것은 내가 변화를 겪고 스스로를 다그치기 시작한 때였다.

5차시 - 읽기 후 활동

처음에는 만남을 거부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였다. 하지만 메리는 끈기 있게 기다려 주었다. 그녀가 다시 면회를 요청했을 때 나는 책임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 자신을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내가 한 일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녀가 겪은 고통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그녀가 용서를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 면회실에 걸어 들어갔고, 그녀가 진심으로 나에게 대해 알고 싶어 한다는 게 느껴지자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다. 교도소에서는 어느 누구도 나에게 대해 알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메리의 아들을 살해한 것에 대해 스스로를 용서했는지 묻곤 한다. 나를 용서하는 과정이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늘 죄의식에 시달리면서 스스로를 파괴하기 시작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열여섯 소년과 지금의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애써 기억하려 한다.

메리를 알고 나서 나는 겸손을 배웠고, 어떤 문제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알았으며, 언제나 최악의 결과만을 예상하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내가 스스로를 믿지 못할 때건 지독하게 고집을 부릴 때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한결같이 나를 지켜봐 주었다. 나를 지지하고 믿어 주는 사람이 있기에 나는 좀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메리가 그 사랑을 라라미언과 나눌 수 있었다면 훨씬 좋았을 테지만 말이다.

나는 고통이 고통을 먹고 자라며 집착하면 할수록 점점 불어난다는 것, 하지만 용서를 하는 순간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사멸해 버린다는 것을 배웠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끌어안고 있던 고통을 내려놓겠다는 것이다.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대개 용서를 하지 못하고, 지독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 타인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 주고 만다.

www.fromdeathtolife.us(‘죽음에서 삶까지’ 홈페이지)에 실린 글,
『나는 너를 용서하기로 했다』 (마라나 칸타쿠지노/ 김희정 역/ 부키/ 2018)에서 재인용.

5차시 - 읽기 후 활동

4. 이 소설의 결말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연이가 서은 엄마에게 편지를 쓴다면 어떤 내용으로 쓸까요? 주연의 입장에서 편지를 써 봅시다.

6차시 - (심화 활동) 영화 『별새』 함께 보기

1. 영화 『별새』 를 ‘관계 맺기’와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감상해 봅시다.



영화 『별새』 포스터 (네이버 영화)

영화 『별새』 줄거리

성수대교가 무너졌던 1994년, 14살 소녀 은희는 방앗간을 하는 부모님 아래에서 언니, 오빠와 함께 살고 있다. 은희는 남자 친구가 있고, 공부는 그저 그렇고, 가끔 콜라텍에서 일탈을 꿈꾸는 평범한 아이다. 부모는 바쁘고 오빠는 공부는 잘하지만 폭력적이며 언니는 바깥으로 나도는 가운데, 은희는 누군가의 보살핌을 바라지만 은희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러던 중 은희는 한문 학원에 새로 온 선생님인 영지를 만나게 되고, 둘은 수업 후 차 한 잔을 나눠 마시며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위로와 응원을 주고받는다. 은희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영지에게 동경과 애정을 품게 되지만, 이내 영지는 사라져 버린다.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은희는 지완, 지숙이, 유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갈등을 겪나요? 그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은 어떤 것이었나요?

- 은희는 영지 선생님과 관계를 통하여 외로움을 극복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한 걸음 더 배우게 됩니다. 은희를 대하는 영지 선생님의 태도와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은희가 영지 선생님을 좋아했던 까닭은 무엇일지 토의해 봅시다. 또, 은희가 선생님에게 배운 것은 어떤 것들이었는지도 말해 봅시다.

6차시 - (심화 활동) 영화 『벌새』 함께 보기

2. 『벌새』에서 은희가 지숙이와 맺는 관계와 『죽이고 싶은 아이』 1, 2에서 주연이가 서은이와 맺는 관계는 어떤 점에서 달랐는지 비교해 봅시다.



3. 『벌새』와 『죽이고 싶은 아이』 1, 2에서 은희와 주연이가 마주한 ‘좋은 어른’의 모습은 각각 어떤 것들이가요? 여러분에게도 ‘좋은 어른’과의 만남의 경험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 친구들과 그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좋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지도 함께 생각해 봅시다.

